

‘당신의 기쁨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¹

이 땅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적 삶에 대한 목상에 대한 칼빈의 사상

G.C. 덴 헤르토흐 (G.C. den Hertog, 네덜란드 아플도른 신학대학 조직신학/윤리학 교수)

번역 : 정찬도

‘로마카톨릭의 장례식은 아직도 개신교의 결혼식보다 더 즐거운 일인가’, 이 질문에 뒤이어서, ‘절약, 궁핍 그리고 비관주의는 칼빈주의의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진 않을 것이지만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 질문은 분명하게 제목을 이 기여 위에 올려 놓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해선 분명히 알 수 있다. 칼빈은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를 쉽게 비웃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 그의 신학? 혹은 우선적으로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의 환경에 탓을 돌려야 할까? 반면에 칼빈은 다른 환경 속에서는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즐거움에 대하여 신학적-원리적으로 서 있었을까?

그것은 칼빈 스스로에게도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칼빈 이후 시대에 불리어진 칼빈주의는 불관용, 궁핍 그리고 반쾌락주의의 불명예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거의 고쳐지지 않았고, 이러한 지배적인 관점은 헨리 물리쉬의 2000년도에 발간한 책에서 잘 나타난다 :

‘암스테르담에 있는 화장터 홀은 낡은 회색 벽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이 도시와 칼빈주의의 정신 위에 있는 하늘이 마치 낡고 회색빛인 것과 같다.’²

여기에 잘 나타난 것 처럼, 실제적으로 오직 한 이미지만 불려질 뿐이다. ‘낡은’은 칼빈주의의 정신이다. 아름답고 좋은 어떠한 것들도 거기에 놓여있지 않고, 당신 역시 그러한 것들을 관련 짓지 않을 것이다. ‘회색’ 또한 그러하며, 결코 밝은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즐거움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주의 신앙과 화장터 홀과의 비유는 둘다 죽음의 냄새만 주변에 가질 뿐이다.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이 오늘날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는 것, 그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노동윤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황금 시대 때 칼빈주의와 경제 번영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특별히 16,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칼빈주의 국가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 명백했고, 충분히 기뻐하진 못했다. 시몬 스하마(Simon Schama)는 황금 시대 때 네덜란드 문화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모토로써 칼빈을 인용하고 있다:

‘가시에 둘러 싸여 있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생각하게 하고, 위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심하도록 하자.’³

1. Naar de *Avondzang*, strofe 6.

2. H. Mulisch, *Het theater, de brief en de waarheid*. Een tegenspraak, z.p. 2000, 7.

3. S. Schama, *Overvloed en onbehagen. De Nederlandse cultuur in de Gouden Eeuw*, Amsterdam 1998³; 영어 제목: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New York 1987. 칼빈의 창세기 3장 주석에서 인용되었다.

그의 책의 제목 역시 충만과 불안을 말하고 있다. 비록 거기에 부와 번영이 있었다 할지라도, 칼빈주의 네덜란드는 그것에 대해 안락하게 느끼지 못했다. 시민들은 스스로 금욕적으로 살았고, '세상 속 고행', 그리고 자신의 수익을 다시금 개인 사업에 투자하였다.⁴ 그러나 이러한 유익은 - '칼빈주의' 노동 윤리 - 다른 한편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비참할 정도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⁵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다시금 수정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과 함께 넘치도록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시몬 뵤켄노흐(Simon Vinkenoog)는 수년 전에 열한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레이든 대학 교수 G.G. 더 크라이프(G.G. de Kruijf)는 15년 전에 이러한 발전에 대해 다음의 비평을 하였다:

'우리 서양 문화는 지상의 삶으로의 지향에 대해 찬사를 받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에 관해서 느슨해졌다.'⁶

그의 관찰은 필자에게 실제적이다. 칼빈이 - 그의 '미래적 삶에 대한 그의 관심'과 함께 - 현대의 네덜란드에서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못한다.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만일 미래적 삶에 참여한다면, 넘치도록 즐거워하지 않을까? 15년 전에 종교사회학자 M.B. 터 보르흐(M.B. ter Borg)는 우리 시대가 '점차적으로 낙원을 찾고자 할 것을 예견하였다.'⁷ 우리가 그것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정 찾았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마치 우리가 -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 스펀지로 수평선 없애듯이 하늘을 없앨 수 있을까?

윤리학자 F. 더 랑허(F. de Lange)는 그의 최근 저서 '스위스의 삶의 감정에 대한 빈곤'에서 말하기를:

'나의 관점은 하늘의 구원이 더이상 사후의 삶과 같이 사후에 일어나지 않고, 단지 스위스 생활 연금처럼 지금 이후의 삶에서 일어난다. 천국은 빈말이다: 처음엔 우리 위에 놓였으나, 지금은 우릴 위해 놓였다.'⁸

더 랑허가 말하듯이 이것은 주요 결과를 가진다:

4. 필자의 글 참조, "Aan Mij is uw vrucht te danken" (Hosea 14,9). Het reformatorische "practisch syllogisme" en de ethiek', in: A. Baars, G.C. den Hertog, A. Huijgen en H.G.L. Peels (red.), *Charis. Bundel ter gelegenheid van het afscheid van prof.dr. J.W. Maris als hoogleraar dogmatiek aan de Theologische Universiteit Apeldoorn*, Heerenveen 2008, 80-84.

5. D. 셸롱(D. Schellong)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소인 칼빈의 의해 읽을 수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의 선택 받음의 확신과 한 때는 그러한 것처럼 여겨졌던 몇몇의 예외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D. Schellong, *Wie steht es um die „These“ vom Zusammenhang von Calvinismus und „Geist des Kapitalismus“?*, Paderborner Universitätsreden 47, Paderborn 1995, 3).

6. G.G. de Kruijf, *Gebruiken en genieten. Een bruikbare onderscheiding in de christelijke ethiek*, (Inaugurele oratie Rijksuniversiteit Leiden), Leiden 1994, 9.

7. M.B. ter Borg, *De dood als het einde. Een cultuur-sociologisch essay*, Baarn 1993, 114; vgl. 57.69.

8. F. de Lange, *De armoede van het zwitserlevengevoel. Pleidooi voor een beter ouder worden*, Zoetermeer 2008, 36.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은 보여졌고 (...) 그러나 더 이상, 영원의 손실을 통해, 무한이 줄어 들었다. (...) 집단적 예배에서 사후 세계의 제거는 어른들의 시간 개념에 급격한 결과를 초래했다. 시간이 관점을 잃어버렸다.'⁹

더 량허는 여기서 50-plus 즉 이는 인생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지불되는 것은 또한 젊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불된다: 즉 시간은 관점을 잃어버렸다. 만약 천국이 더이상 '새롭게되지 않는다면', 이 인생이 우리가 기다렸던 모든 것을 반드시 전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칼빈을 혈똥는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이다. 이것이 그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일까?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길 원했을까? 정말로? 칼빈이 우울한 어조로 시작한 것처럼, 그것이 그의 모든 이야기일까?

그러므로 필자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그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기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불명예' 그리고 '감옥'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언급들을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미래적 삶에 대한 기대'를 향한 그의 관점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한다.

기쁨

칼빈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비해, 우리가 그를 통해 읽게 되는 모든 것에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지 이 처럼 아름답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로 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¹⁰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인간의 안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는 시편 8:7에 언급하고 있다.¹¹ 그의 시편 104:32 주석에서, 그는 말하기를, 세상의 협정도 하나님의 기쁨에 그 근간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¹² 당신은 감히 창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더 나아가 다가 올 세상에서도 감각 기관의 방해 없이도 기뻐할 것이라라고 말한다.¹³

성(sex)이 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기 원하고, 혹은 성을 즐기길 원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 H.W. 더 크네이프(H.W. de Knijff)는 그의 저서에서 유럽의 에로틱 문화와 기독교의 성 윤리에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칼빈을 결혼과 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로 부터 구별하여 설명한다. 결혼은 그

9. F. de Lange, *De armoede van het zwitserlevengevoel*, 112v.

10.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깊은 사고로 말하는 것이다' (C. van der Kooi, *Als in een spiegel. God kennen volgens Calvijn en Barth. Een tweeluik*, Kampen 2002, 75; vgl. ook J. van Eck, *God, mens, medemens. Humanitas in de theologie van Calvijn*, Franeker 1992, 169v).

11. Eberhard Busch e.a. (Hg.), *Calvin-Studienausgabe. Bd. 6. Der Psalmenkommentar. Eine Auswahl*, Neukirchen-Vluyn 2008, 70. Vgl. W. Balke, 'De waardering voor het aardse leven in Calvijns Psalmencommentaar', in: W. Balke, *Calvijn en de bijbel*, Kampen 2003, 152.

12. Eberhard Busch e.a. (Hg.), *Calvin-Studienausgabe. Bd. 6. Der Psalmenkommentar*, 312. Vgl. J. van Eck, *God, mens, medemens*, 171.

13. Vgl. J. van Eck, *God, mens, medemens*, 174.

종교개혁자를 자신의 엄격하고 금욕적인 모습으로 표시하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의 의미를, 성적 기쁨을 포함하여, 제거하였다.¹⁴

어디에서 금욕주의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가 왔으며, 누구에 의해 이 모든 기쁨이 숨막히고 좌절스럽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그 또한 – 반드시 알게 되듯이 –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울하게 그린 각각의 주제들과 그의 강조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옥으로서의 육체

필자는 칼빈이 육체를 비하하며 부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것은 창조된 세상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관점과 상반된 건 아닐까? 이것은 혹시, 그가 이러한 상반된 것을 보지 못했거나 혹시 풀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감옥이라는 것은, 칼빈에 의해 강조된, 죄의 결과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낙담스런 존재에 갇혀있다. 인간은 더 높은 시민권을 위해 부름받았다. 인간은 이 땅에서의 직접적이고 견고한 기쁨 속에 살기 위해 창조 된 것이 아니다. 동물이 영생을 소망하지 않듯이, 인간이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다.¹⁵

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부터 부패되었다. 우리는 보지 못하도록 저주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단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접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참된 삶을 잃어버렸다는 깨달음 없이, 기울어진 성향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선물이 좀이 먹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뻐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선물이 아마도 잘못 된 건 아닐까? 아니다, 그것들이 잘 못된 것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바른 빛 안에서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의 선물을 주신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에 만족하고 '위의 것을 찾게'(골 3:1)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목적에 다다르지 않았음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을 통해 세상 물질에 대한 바른 안목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 존재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불러 일으키며, '주와 함께 있길'(고후 5:8) 원하게 한다.

십자가 짐과 자기 부인

칼빈에 의한 두번째로 어려운 강조점은 '십자가 짐'이다. 이 단어를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모든 가정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란 말을 안다. 칼빈이 말한 바가 이것일까? 그는 이 격언에

14. Vgl. H.W. de Knijff, *Venus aan de leiband. Europa's erotische cultuur en christelijke sexuele ethiek*, Kampen 1987, 174v; 필자의 글 참조, 'Om het ware genieten. De seksualiteit in de geschiedenis van de kerk, en met name in de gereformeerde traditie', in: *Tempel of consumptieartikel. Aspecten rond relatievorming en seksualiteit*, Kampen 2008, 18v.

15. Vgl. J. van Eck, *God, mens, medemens*, 183.

동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과 죄의 결과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 만약 그가 기독교적 삶을 '십자가 집'으로 말한다면, 그가 의미하는 바는 병과 불운의 고통과는 다른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

그 차이점은 첫째로 '내면'에서 나타난다. 비록 신자가 불신자와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내면은 전적으로 다르다. 신자는 그 일 안에서 주를 보게 된다. 그는 또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우리가 심판으로 받게 되는 형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 마치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말하듯이 - 가까이 있도록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좋고 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곳에 있지 않다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대한 내부적인 저항이 있고,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벧전 5:6),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진실로, 그것이 좋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것이다. 그에게 그 고통은 '불운' 혹은 '운'이 아니라, 믿음의 학교이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주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신다고 말하고 있다(히 12:6). 그것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주님은 오직 내부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의 빛 안에서 삶의 자연적 고통을 보기 때문이다. 성도는 또한 - 이것이 두번째이다 - 고통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매일매일 견고한 삶을 통해 걸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칼빈이 그의 피난처였고, 그가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제네바로부터 쫓겨난 것을 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쓰러진 것이었고, 인간에게 아무 기쁨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활발하게 명상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늘의 영생 불멸을 동경하지 않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사후의 영생을 바랄 수 없다면 우리의 처지는 야수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행동을 검토한다면, 우리는 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¹⁶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 III.7.1.의 모토와 같이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 : 자기 부인.' 우리는 인생과 삶에 대해 비관주의 관점에 대한 증거들을 읽을 때에, 칼빈이 법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오직 우울하게 보여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위험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

16.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9,1 (ed. Sizoo, deel II, 210v).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짐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허상이 매혹적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참된 기쁨에 확신케 하는 목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Hebr. 12,1).

자기 부인이란 인생을 향한 증오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칼빈이, 그가 다른 면 또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처럼, 그의 『기독교 강요』 제 1권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만 가지고 결코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구체적인 자기 부인 안에서, 칼빈이 논쟁을 이끌었던,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한 안목을 열리게 된다. 금욕주의자들은, 모든 기쁨을 부인하는, 칼빈의 요지를 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삶을 위해 풍족히 공급받는 모든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한다. 오직 우리가 이곳에서 그 방편을 굳게 붙들 때 -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방편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본질적인 방편 -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살아 가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게 된다:

‘이런 자기 부정은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의 의무를 다 실행하고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영화는 이웃과 관계 있다.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즐거움’은 특별히 당신이 좋게 여기거나 기쁨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하며 ‘너 자신만 돌보아라!’ 말한다. 칼빈의 자기 부인은 이웃의 선을 위한 것이다. 본의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실한 성향’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옛 사람의 죽음이 먼저 생각되고, 우리가 칼빈에게서 듣는 것 처럼, 우리가 실제로 다른이들에게 빛지고 있는 것을 행할 때 사랑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함께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신실한 성향’은 자발성과 기쁨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적 삶에 대한 기대’

우리는 지금 칼빈이 우리로 그의 마지막 강조점인 ‘미래적 삶에 대한 기대’에¹⁸ 이르도록 하기 위한 관점들을 충분히 들었다. 그것은 처음 들었던 것과는 같지 않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다소간 나뉘지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토마스 아 캄피스(1380-1472)의 ‘구석에 있는 책과 함께’(Met een boekje in een hoekje)과는 다른 것이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는 종교개혁에 있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종교개혁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다. 수도원의 문들은 열려 있었고, 그 목적은 전혀 세속화되지 않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삶의 성화였다. 성화의 삶을 위해 칼빈은 로마서 12:1 이하를 그 중심에 놓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사의 표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로 ‘변화되게 한다.’ 로마서 12:1 이하에서 수동형의 동사가 - ‘변화되었다’ - 사용되었고, 드러났을 뿐 아니라 결코 실수 할 수 없는

17.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7,7 (ed. Sizoo, deel II, 192).

18. Vgl. A. Baars, ‘Meditatio futurae vitae bij Calvijn’, *Theologia Reformata* 47 (2004) 225-247; A.J. Zoutendijk, ‘Calvijn en de vreemdelingschap’, *Kontekstueel* 17 (2002/2203), nr. 3, maart 2003, 14-18.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40:7-8에서 읽는 바와 같이 주님의 예배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행하게 된다.

제사의 개념을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미사로부터 그 단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없는 제사의 반복'이라 일컬어졌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 제사는 구약성경적이거나 교회적 의식이 아니었고,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기록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었다.¹⁹ 그 제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20세기 신학자 노르트만스(O. Noordman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서 12장에서 성령 안에 있는 예전은 길거리에서 찾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의 제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바르게 이행된다. 로마카톨릭 교회 의식은 여전히 우리와 거리가 멀다. 오직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신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에게 보물일뿐 아니라 유익이다! 마가복음 10:38 이하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을 것과 그가 마셨던 것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례적 용어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안에서 '그의 고난의 교제'(빌 3:10)를 의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또한 로마서 8:17에, 바울이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불 시험'도 견뎌야 한다.(벧전 4:12) 우리는 우리에게 터무니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고난'은 교회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였다!

로마서 12:1 이하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어떻게 견고한 형태로 취하여 지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이 핵심 용어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8).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핍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견딜 수 있다(롬 12:12). 우리는 더이상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롬 12:21). 그것은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되듯이 우리 생각의 새롭게 됨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위해 사용하였던 상은 파수꾼이다.²⁰ 왜 그는 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상을 군대에서 가져왔을까? 파수꾼은 걱정 없는 즐거움 혹은 충족의 장소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 '파수꾼'이란 용어 사용은 이 세상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 앞에 놓인 군대 행렬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주님이시다. 그것은 그의 전쟁이고, 우리는 그의 예배 안에서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은 칼빈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²¹

19. Cf. 'Gekruisigd christenleven. Calvijn over het dragen van het kruis', in: A. de Reuver, *Kruis en gratie. Calvijn over de rechtvaardiging, het kruisdragen, het gebed*, Dordrecht 1980, 61-127 (m.n. 68v).

20.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9,4 (ed. Sizoo, deel II, 216); vgl. A. Baars, 'Meditatio futurae vitae bij Calvijn', 246.

21.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6,1 (ed. Sizoo, deel II, 184).

그래서 삶은 전쟁의 표시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우리는 죄와 악의 능력과 맞서야 하기에 근신하여 깨어 있고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엡 6:10-20). 이 갑옷은 우리의 전쟁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출애굽기 14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잠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의 가능성과 책임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현실의 전쟁을 싸워 승리를 거두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주와 따로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보초를 서야 한다(고후 5:6).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후 5:9)!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보초를 서고, 그리고 - 파수꾼과 같이 - 우리의 구원을 진실로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기까지(고후 5:8) 아침을 기대한다 (시 130:6).

'그것이 좋더라도, 그럴 순 없다'

시작하면서 필자는 칼빈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자체로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이 없는 것인지 물었다(헨리 물리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분명히 이 질문은 대답하기에 평범한 질문은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떠하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설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그리스도는 말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라고 말한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스위스의 삶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좋더라도, 그럴 순 없다'란 속담이 있다.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신터클라스 축제(역주: 12월 5일에 있는 네덜란드 축제)의 초콜렛을 받는다면, 그들은 한꺼번에 다 먹고자 할 때, 당신은 자녀들에게 이 속담을 말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초콜렛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현명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맛있는 초콜렛을 한 꺼번에 다 먹고 나서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적 지혜는 어른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당신은 기쁨에 젖을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모두 그래야만 한다면 말이다. 시편 17편은 '이 세상의 분깃을 가지는 것'과 '바로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될 것이다. 참된 삶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삶의 좋은 것들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얼굴의 화려함이 위로와 빛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요 이유이다. 그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기쁨과 위로를 준다.²² 그렇다면 무엇이 참 기쁨일까?

22. Vgl. A. de Reuver, *Kruis en gratie*, 124vv.